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헐떡 더위 속에서 | 박명송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우리 마을 학교는 우리 손으로 | 송지홍
- 13 **쭌리읍쑤어, 캄보디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을 주고 든든하게 해준다. | 박주선
- 17 **쭌리읍쑤어, 캄보디아**
오랜 전통 '고똥로용(GotongRoyong)' 에서 JTS의 원칙을 찾다 | 박영일

국내소식

- 20 **함께 나누는 사랑**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 편집부
세상을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 김주원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 이명숙
- 28 **JTS와 함께하는 사람들**
100원으로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학교 짓는 아이들 | 배해정
봉사활동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니 축제처럼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 이민하

나눔회원소식

- 32 **활동터 소식**
인도·필리핀
- 35 **후원인의 소리**
- 36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특별후원금·나눔저금통

해외소식 _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헝떡 더위 속에서

인도 생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수자 타아카데미가 여름방학을 맞았다. 더불어 지바카병원도 곧 더위로 인한 휴원을 할 예정이다. 5월, 이곳의 날씨는 한 낮 햇볕 아래 기온이 섭씨 60도를 넘어서는 정도여서 밖을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다. 그래서인지 병원을 찾는 환자수도 급격히 줄었다.

마을 유아 중 80퍼센트 이상이 저체중아인 이곳의 현실에서 볼 때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철분과 칼슘이 든 영양제 공급이 필요하다.



여름철에 병원은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7시 30분에 문을 열고 있다. 일반진료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병원 여는 시간에 맞춰 왔다가 10시 전에는 치료를 받고 모두 돌아간다. 오전 8시부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10시, 11시를 넘기면 외부 활동이 힘들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 맞춰 점심시간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변경됐다. 2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 이 더위에 마땅히 설 만한 장소도 없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옷을 적신다. 잠깐의 잠을 내 몸에 몰도 뿌려보지만 상쾌함도 잠시 뿐, 이마에서부터 느껴지는 찢듯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이곳에 와서 50여 일 동안 먹은 설탕양이 한국에서 1년간 먹은 양보다 많은 것 같다. 처음에는 당뇨병이 걸리지나 않을까 해서 조절했다. 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더위에 당분과 염분을 계속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탈수증세가 보여 수시로 먹어줘야 한다. 더위에 힘들어하는 게 나만은 아니다. 최근 들어 병원 여는 모임에 참석한 인도인 스텝들과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들 역시 지쳐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평소 일도 잘 하고 부지런하던 8학년 링키가 계속해서 쓰러진다. 보기에다 허약한 체질인데 더위를 먹어 꼼짝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링키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산을 넘고, 먼 길을 걸어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인도인이라고 어찌 이 더위에 멀쩡할 수 있으랴.

마을 유아 중 80퍼센트 이상이 저체중아인 이곳의 현실에서 볼 때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철분과 칼슘이 든 영양제 공급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도 영양제를 구입하고는 있지만 저체중아와 산모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까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편애하고 싶은 마음

병원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나름 성품이 우수한 아이들로 뽑힌다. 몸이 허약하고 금방 지쳐 보여도 일 할 때는 열심이다.

처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병원의 학생들이 기특하여 인도JTS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몇 번 했다. 그 규정이란 것이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무언가를 마음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해외소식 _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있고 대다수가 천민인 학생들은 누군가 특별히 준다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규정을 알고 있고 동의를 하면서도 여섯 명의 병원팀에게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매일 비스킷 1봉지와 비타민C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알맹이 초콜릿을 몇 알씩 주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결국 인도 JTS 팀장인 제이제가 브라더에게 주의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편애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학생들은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매일 아침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이동진료를 가다

병원 일정에 따라 매주 금요일이면 마을 단위로 이동진료를 나간다. 몇 년 전에 후원 받은 앰블런스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다. 지바카병원의 앰블런스로 후원받은 오토릭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결핵환자용으로 쓰이고, 금요일에는 이동진료, 그 밖에는 다른 일

정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예정대로 어느 금요일이 되어서 병원 스태프들과 함께 안투비가라는 마을에 이동진료를 나갔다. 그 마을은 전정각산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98% 이상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다. 걸어서 가면 20분 정도 걸리지만 앰블런스를 타고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요란한 앰블런스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까무잡잡한 꼬맹이들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우릴 반겼다. 스태프들이 준비해온 드레싱 물품과 교육용 차트를 내리는 동안 꼬맹이들은 앰블런스에 올라타 보기도 하고, 물품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며 좋아했다.

치료를 하는 동안 나는 구석진 곳에서 꼬맹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 아이들은 외국인인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한지 한시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나보고 계속해서 시스터라고 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서툰 힌디실력으로 “네히 시스터, 함 브라더 해(나는 시스터가 아니야, 브라더야)”라고 했다. 그러면 이해할 것 같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좋다고 더 크게 깔깔거리며 웃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이가 빠진 아이, 콧물이 질질 흐르는 아이, 눈곱이 심하게 두껍게 낀 아이 모두가 웃에 때 국물이 흘러도 얼굴에 가득한 해맑은 웃음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 그 자체였다.

마을 주민들은 병원이 가까워도 쉽게 찾지를 않는다. 병이 크게 나서 힘든 상태가 되어야

아이 모두가 웃을 때 국물이 흘러도 얼굴에 가득한 해맑은 웃음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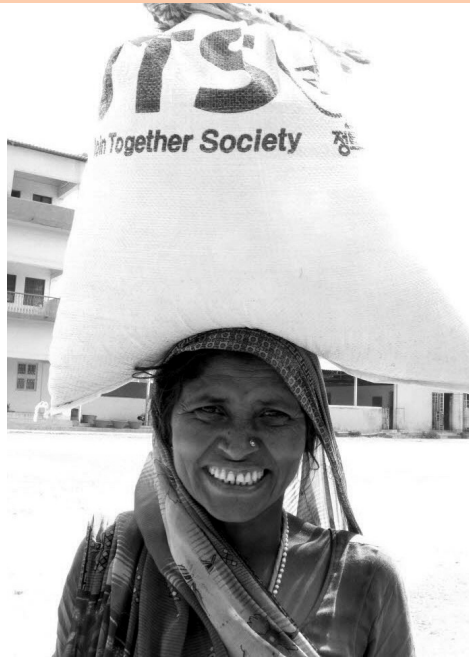
병원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진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더 큰 병을 막기 위해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앰블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오토리샤가 환자이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60도를 오르내리는 이 더위에, 울퉁불퉁한 먼지 길을 시속 25Km 속도로, 그것도 환자를 싣고 보드가야 병원까지 달리다 보면 오히려 환자의 병이 더 악화될까 우려될 지경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진료를 모두 마치고 차에 오르니 마을 어귀에 들어 설 때와 같이 꼬맹이들이 손을 흔들며 환송을 해주었다. 내가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내게 이렇게 인사한다. “나마스떼, 시스터”

저체중아 지원

인도에 와서 한 달 넘게 저체중아 조사를 했다. 마을 별로 5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아이들에게 영양식과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나 지난 5월 9일에는 저체중아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82명의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10일 병원 최초로 대대적인 쌀 지급 행사를 가졌다. 총 518명이나 되는 대상자들에게 쌀과 달(인도인이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의 재료)을 지원했다.

병원 스태프 4명과 건축부 인턴 5명이 2팀으로 나눠 쿠폰(확인증)을 받고 물품을 지급하였다. 결국 3시간여 만에 끝을 볼 수 있었다. 눈



이 폭 꺼지고 목에서 열기가 훅훅 달아오르고 위액이 거꾸로 치솟아 목구멍에서 자꾸 쓴내가 올라왔다. 스태프와 인턴들도 그제서야 한숨 놓으며 땀을 닦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체중아 지원물품을 받아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생애 가장 보람된 일을 한 날이구나 싶었다.

한국에서의 5월이 그림자다. 푸른 숲과 향긋한 꽃, 맑은 공기와 하늘, 물로 넘실대는 행복한 가정의 달. 하지만 인도의 5, 6월은 끔찍이도 1년 중 가장 덥고, 그래서 힘든 달에 속한다. 상대적인 것을 통해 행복함을 알아간다. ✿

글 박명송 | 인도 JTS 의료팀장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2011년 JTS 학교 건축 프로젝트
“ANG ESKWELAHAN NAG-AGAD SA AMOA”

우리 마을 학교는 우리 손으로



JTS는 2011년 8개 마을에 14칸의 학교 교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물록 지역의 4개 마을(키타스, 발라, 바삭, 사라와곤), 아구산 델 수르 지역의 3개 마을 (킬랑콕, 리보송안, 몰리), 딸라각 지역의 1개 마을 (오버루킹)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개 마을에서 전개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소식지를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S의 학교 건축 과정은 자재 운반부터 학교 건축까지 누구 하나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을 주민들 몫입니다.

“즐거운 배움터, 학교 건축 현장”

오늘은 오버루킹 마을에 학교 건축 자재를 전달하는 날입니다. 하드웨어 가게에서는 오버루킹 마을까지 자재를 배송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은 거리도 멀고 위험한 곳이라며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JTS 트럭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JTS Staff들이 어제 미리 자재를 구입하여 트럭에 싣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민다나오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특히 JTS가 지원하는 지역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라 매일 오후 어김 없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건축 자재 배송이 힘들어집니다. 마을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기에 사람들이 직접 자재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운반을 마치기 위해서 저희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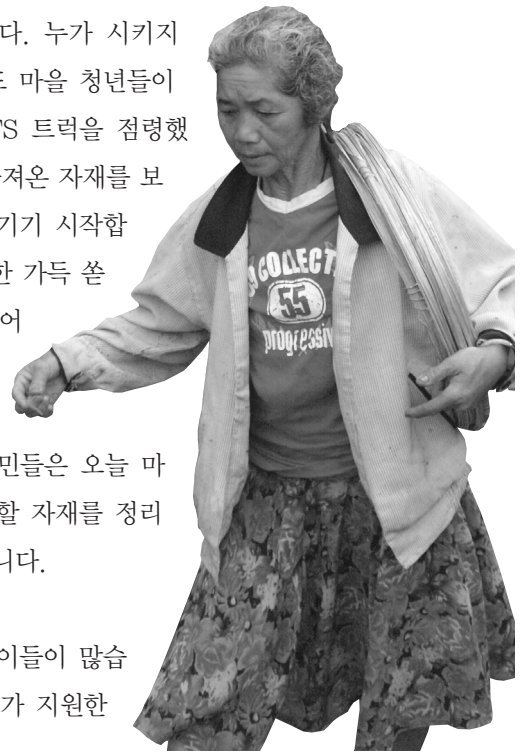
오버루킹 마을 입구 까지는 트럭으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큰비에 움푹 파인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니 온 몸이 뼈근해 집니다. 마을에 가까워 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지고 사람 흔적은 줄어들어 들판입니다. 가는 길에는 인근 농장으로 일하러 가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일꾼들을 JTS 트럭 짐칸에 함께 태워 갑니다. 금새 트럭 짐칸은 자재뿐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짐칸에 있는 JTS Staff 한 명이 철근과 시멘트를 싣고 가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바쁩니다. 저희에겐 이 사람들이 JTS의 경호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포장 도로를 신나게 달려 바탕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버루킹 마을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마을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 자재를 트럭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누가 내리냐고요? 물론 오버루킹 주민들입니다. JTS의 학교 건축 과정은 자재 운반부터 학교 건축까지 누구 하나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을 주민들 몫입니다.

건축 자재 나르기

오버루킹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JT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자 주민들은 JTS를 맞이 하러 모여 듭니다. 오버루킹 주민들은 이미 한 차례의 학교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어떤 일이든 척척해 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을 청년들이 어느새 JTS 트럭을 점령했습니다. 가져온 자재를 보관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땀 한 가득 쏟고 나니 어느새 자재를 모두 옮기고 주민들은 오늘 마을로 운반할 자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JTS가 지원한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재를 나르기 위해서 어른들과 함께 내려 왔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어느새 철근 1개를 어깨에 매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신들이 다닐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나른 이 아이들은 분명 남들보다 학교에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 건축의 성과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 건축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마을 일을 논의하고 협동해 본 경험은 어디 가지 않고 마을 주민들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철근 5개씩, 아이들은 철근 1개씩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청년이지만 철근 3개만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며 웃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선 속으로 물어봅니다. “괜히 무리 하는 거 아닌가요?” 덩치 값은 해야지 하며 일어나 보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온

말은 가장 무거운 시멘트를 맡았습니다. 자기 몸 양쪽으로 시멘트 1 포대씩 짊어 졌습니다. 조금은 측은해 보이기도 하지만 마을 학교를 위해 말까지 노력한다고 생각하니 이내 고마워집니다.

선두가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의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걸어도 쉽지 않는데 오늘은 자재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저야 이번 한번만 나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습니다.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저도 지쳐 갑니다. 아이들도 힘이 드는지 어느새 철근을 땅에 내려 놓고 끌고 갑니다.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모두들 멈춰 서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순간순간은 힘이 들지만 완공될 학교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힘을 모아 함께 하니 더욱 든든합니다.

학교 증축 결정

오버루킹 학교는 2004년에 건축되었습니다. 학교가 건축된 이후로 마을에는 주민들이 꾸

마을이 발전하니 자연스럽게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JTS는 이 마을에 학교 증축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히 늘어났습니다. 마을의 리더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발전하니 자연스럽게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JTS는 이 마을에 학교 증축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은 철근을 준비합니다. JTS staff은 목수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톱니 바퀴 맞물리듯 척척 진행됩니다. 철근을 구부리기 위해 쓰지 않는 충을 사용할 정도로 낙후된 환경이지만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1시간을 꼬박 걸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기존 학교 건물 옆으로 새 건물이 들어설 땅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지난 2010년 평화캠프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도 이 학교 건물의 완공을 기다릴 생각하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한참 어른들이 망치질과 톱질에 여념이 없는 사이 어느새 어린이들이 한 켠에 모여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망치질과 톱질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자리를 비울 때면 슬그머니 망치와 톱을 집어 들고 흥내

학교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 진행

오늘은 학교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학교 건축을 담당할 목수들이 목재와 연장을 들고 모여 듭니다. 이내 JTS 기술 Staff의 지휘에 따라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재를 준비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학교 건축 현장은 어른, 아이가 함께 어우러진 배움의 장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마을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협동심과 연대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워 갑니다.

를 냅니다. 얼마나 해보고 싶을까요? 슬그머니 JTS 기술 Staff에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 해 봅니다. 이내 아이들도 각자 임무를 하나씩 배정 받았습니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저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싶습니다.



있을까요? JTS 학교 건축 현장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워 갑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마을과 민다나오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협동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운다면 마을과 민다나오의 평화와 발전도 언젠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 봅니다.

JTS는 단순히 마을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마을에 제안하고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일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해 갑니다. 학교 건축 현장에서 보니 그것이 더욱 확실해 집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해 줄 테니까요. ✨

글 송지홍 | 민다나오 JTS

학교 건축 현장은 어른, 아이가 함께 어우러진 배움의 장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마을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협동심과 연대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워 갑니다.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며 물건의 무게 중심과 몸의 균형을 알아 가는 것은 물론 어른 옆에서 연장 쓰는 법과 도구를 활용하는 법도 배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 직접 해 본 경험이 주는 자신감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배움이 어디

해외소식 _ 쯔리읍쑤어, 캄보디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을 주고 든든하게 해준다.

캄보디아에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었다. 우기가 시작된 것이 이번처럼 반갑고 반가울 수가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 물이 부족하여 라 타나끼리는 물난리를 치렀다.

우물에 물이 말라 집집마다 우물을 더 파고, 학교 공사 현장에서도 여기저기 매일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더욱이 반릉에 있는 호수에 물이 말라가면서 5월부터 하얀 순백의 꽃잎을 띄우던 백련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09/04/2011





2월부터 시작된 학교 공사는 자재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5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처음 라타나끼리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을을 선정할 때 이동이 차량으로 가능하고 자재공급이 어려움이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재공급에 크게 어려움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5개의 학교 중에 1개를 제외하고는 차로 마을까지 갈 수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서 자재공급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언동미어 District는 반룽(라타나끼리 주도)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이동한 후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오토바이로 산길을 따라 가면서 7개 마을에 3개 학교를 짓게 되면서 자재를 운반하는게 가장 큰 일이 되었다. 마지막 마을까지는 강에서부터 30킬로 정도를 가야 하는데 이 곳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우기철 자재공급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듯 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서 차로 자재 운반을 할 수 없는 4개 학교는 마을 주민회의를 통해 콘크리트와 목재를 혼합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목재 구입에 문제가 생기면서 3월, 4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재공급에 문제가 생길때는 현장에 방문하여 그 곳 사정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자주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워낙 마을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보니 다녀오면 녹초가 되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자게 된다.

이럴 때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힘을 맞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드디어 지난 주에 자원봉사자가 한 명 오게 되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나에게 힘을 주고 든든하게 해준다. 당장 처음부터 현장 일을 맡아서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 해결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곳에서는 큰 힘이 된다.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캄보디아를 경험하고 사귀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 JTS 후원자분들이 캄보디아에 소식을 보내왔다.

이제부터 새롭게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아가는 동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글 박주선 | 캄보디아 JTS

문제가 생길 때 해결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곳에서는 큰 힘이 된다.

안녕 연잎

~~~네가 알다시피 여기는 캄보디아. 태양과 가까이 사람들마저 태양을 닮아 버린 해맑은 나라. 그 곳에 내가 있어.

네가 두 시간 전에 먹었던 콩국수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온 몸에 녹아 들어갈 즈음에 나의 지금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곳이야.(그냥 콩국수가 많이 먹고 싶나보구나 라고 받아주면 돼.) 너와 내가 이 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무렇지 않고 놀라운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다 이런 것 아닐까?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것인가? 놀랍게 여겨 새롭게 받아들일 것인가!

캄보디아는 도착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무비자 국가는 아니지만 무비자 국가에 가까운 신속한 비자서비스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 혹시 연잎 네가 나를 못 견디게 그리워한 나머지 이 곳에 날아오고자 한다면 여권만 챙겨서 당장 비행기를 타. 아, 달리 두둑한 지갑은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당연히 챙겼을 거라 믿으니 두 말 하지 않을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나를 만날 달콤한 상상에 빠진 넌 기내식을 코로든 입으로든 자유롭게 섭취하겠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한 숨 돌리고자 할 때! 승무원들은 네가 편히 쉬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다짜고짜 영어와 크메르어가 가득한 서류 세 장을 들이밀 거야. 바로 그 때부터 비자 신청은 시작되는 거야.

서류 세 장은 모양만 달리한 일맥이 상통한 녀석들이니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돼. 내용도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이야. 여권에 있는 것들을 눈치껏 옮겨 적으면 충분하지. 여행목적이나 머무를 장소 등등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은 그냥 두어도 무방해. 걱정된다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긴 해맑은 캄보디아야. 쫄쫄하게 굴지 않는다고. 그러니 안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여권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서류들 품으로 고이 모셔줘. 다했어? 어디보자. 그래 잘했어. 훌륭해. 이제 연잎 넌 역할을 다했으니 편히 쉬어도 좋아.

네가 쉬는 동안에도 비행기는 쉬지 않고 날아 너를 내가 있는 이 땅에 내려놓을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아, 너무 긴장을 풀지



## 해외소식 \_ 쫄리음썬어, 캄보디아

학교를 짓겠다는 그들의 열망과 그리고 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나에게 떠오른 단어는 고단함이었다.

말라고 마지막으로 말할게. 여긴 캄보디아야!

비행기를 내려 길과 사람들을 따라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무리를 지어서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 그곳이야. 연잎 너에겐 여권사진 한 장과 서류 세 장에 더불어 두둑한 달러까지 있으니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자 당당하게 데스크로 나가서 두 손에 움켜진 여권사진 한 장과 세 장의 서류를 내밀어. 혹시 네가 이 곳에 오래 머물고 싶거들랑 비자 연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그렇지 않고 곧 떠나려거들랑 트래블이라고 크게 외치면 돼.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아무 말 없다는 건 알아들었다는 뜻이야. 잘했어 연잎!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너의 이름을 호명하는 직원의 낭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고, 이제는 두둑한 달러의 맛을 보여 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바람직하지. 그래도 어디를 가나 돈 자라는 매우 위험한 일이니 필요한 만큼만 미리 돈을 빼어 놓는 것이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를 꿈꾸는 연잎에게 어울리는 행동이겠지? 아, 참. 비즈니스는 25불, 트래블은 20불이야. 그렇게 넌 아무 문제없이 캄보디아의 품에 곧 나의 품에 안기게 될 거야.

아, 잠깐. 뭐라고? 다 있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고? 그럼, 배타고 오는 건? 뭐?? 배 멀미가 장난이 아니라고?

휴... 그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내년에 아름다운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날까지 몸조심 맘조심 하는 건 각자의 몫임을 잊지 말자고! 다음에 또 편지할게.

p.s 이곳에서도 한 송이 연꽃을 피워내는 무수한 연잎들을 보면서 세상은 역시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 이 세상을 닮아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섭씨 바이.

2011년 5월 26일 목요일  
훈재가

\*섭씨바이 : 캄보디아에서 두루 사용되는 인사 말.

## ※캄보디아 비자 받기

캄보디아 비자를 발급 받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위 글에서처럼 현지 공항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용 사진과 비자발급 비용이며 신청서류는 기내에서 배부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기 체류를 위해 비즈니스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캄보디아 현지 여행사를 통하여 별도의 연장신청 및 접수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랜 전통 '고똥로용(GotongRoyong)' 에서 JTS의 원칙을 찾다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자카르타 발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빠당미낭까바우(Minangkabau) 공항에 내리니 구름마저도 유리처럼 맑은 하늘이 나를 반겨줬다.

1년 먼저 오셔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임희성 기사님께서 자동차를 준비해 주셔서, 그 차를 타고 JTS 사업장이 있는 루북바승깜뽕땡아(Kampung Tangah) 마을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어로 들판이라는 뜻의 ‘빠당(Padang)’이라는 지명에 걸맞게 차창 밖으로 하늘만큼이나 푸른 논밭이 펼쳐졌고, 중간 중간 텔레비전 위성 안테나를 장착한 양철 지붕 집들이 보였다. 한국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든 전원적인 풍경에 잠시 감상에 젖으며,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이 어떤 곳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지난달 26일 아침 현지인 자원활동가인 에코(Eko)와 함께 깜뽕삐낭(Kampung Pinang) 마을에 가서 유치원 부지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JTS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009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저소득층에게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60채의 주택을 지어줬다.

이 사업에 이어 올해 루북바송의 네 개 지역 깜뽕삐낭, 승에자리양(Sungai Jariang), 망고뽕(Manggopoh) 그리고 아낙 아이르꾸마얀(Anak Air Kumayan)에 각각 한 개씩의 유치원을 건설하고, 추가로 한 개의 유치원 후보지를 더 찾아 오는 연말까지 총 다섯 개의 유치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일년 내내 뜨겁게 비치는 태양아래 누렇게 잘 익어가는 벼들을 보며 깜뽕삐낭의 빠사르두리안(Pasar Durian) 마을에 도착해 보니, 벌써 열댓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히 세 아름은 되어 보이는 쟁꼴(Jengkol)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고 있었다.

작업을 하던 현지인에게 쟁꼴이 어떤 식물인지 물으니,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건강식품이며 특유의 성분 때문에 쟁꼴을 먹고 오줌을 누면 강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나중에 기회가 있어 식당에서 쟁꼴을 먹어보니, 우리나라의 은행과 같이 약간 씹쓸하면서도 쫄깃한 맛이 있다.

쟁꼴 나무를 비롯하여 여섯 그루의 팜 오일 나무가 잘라지고, 거대한 나무동이를 사람들이 모두 모여 꺾깁대며 밀어내는 모습을 보니 몸이 근질거렸다. 그래서 주민들 틈에 끼어 힘을 보태니, 어느덧 넓은 유치원 부지가 드러났다.

루북바송 교통건축담당 공무원인 줄(Zul) 씨는 유치원의 예상 크기와 대문이 들어설 방향 등을 상세히 알려 주셨다. 이곳에 유치원이 건설되면 이 마을 아이들의 유치원 통학 거리가 3~4 Km에서 1~2 Km안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주민들이 땀을 식힐 겸 티타임을 가졌다.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나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날씨에 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권하며 이야기를 청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을의 공동 작업에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눔으로써, 공공 시설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까르또노(Kartono) 씨는 이번 유치원 공사를 책임질 마을 공동 노동 조직의 대장이라고 한다. 그외에도 부대장과 재정 책임자, 후원담당, 노동담당, 고통로용 담당 등 제법 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다.

지난 2007년 2학기에 중부자바의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할 때 읽기 지문으로 ‘고퉁로용(GotongRoyong)’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주로 마을에 머스지드(Mesjid : 이슬람교 사원) 등 큰 건물을 지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그렇지 않다면 정해진 날짜에 나와서 벽돌을 나르는 등 품앗이를 한다. 만약 양생이나 미장 등 공사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 본인의 재능을 나눌 수 있고, 일가 친척 중 그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마을에 살더라도 대신 나와 일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을의 공동 작업에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눔으로써, 공공 시설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아마 우리 JTS가 추구하는 ‘원자재 지원 원칙(Help them who help themselves)’이 이 나라의 오랜 전통에 이미 녹아 있는 건 아닐까? 이날 저녁에는 에코와 승에자리앙의 머스지드에서 열린 마을 회의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어로 강을 뜻하는 ‘승아이(Sungai)와 그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렁안(Jaringan)’을 이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미낭까바우족 지방어로 발음하면 승에자리앙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 장소까지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다리를 지나쳤다. 알라신에 대한 기도와 함께 마을 회의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제법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유치원 건설에 뜻을 모으고, 공사를 담당할 공동 노동 조직을 구성했다.

내가 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운 인도네시아어가 아니라 미낭까바우 지방어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강의 의미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승에자리앙 왈리 조롱(WaliJorong : 우리의 마을 이장)의 정리 발언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급속히 자본주의화되면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전통인 고통로용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JTS와 협력하여 진행 하는 이번 유치원 건설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아름다운 공동 노동 문화를 복원하여 향후 계획된 머스지드중축에도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

글 박영일 | 인도네시아 JTS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 JTS와 함께하는 빈곤퇴치 캠페인 -

2011년 4월 25에서 5월 8일까지 JTS 빈곤퇴치 캠페인이 열렸다.

총 1822명이 참석하여 53,279,040원을 모금하였다.

경남 김해에서 목포, 지리산 둘레길, 함양, 의정부까지 전국 134곳에서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빈곤퇴치 캠페인을 뜨겁게 진행해주신 모든 JTS 자원봉사자들과 모금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



### 방송인 자원봉사모임 〈길벗〉 JTS 캠페인 명동에서 진행

글 편집부

올해도 어김없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후 두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다. 바로 JTS의 방송인 자원봉사모임인 〈길벗〉이 주관한 어린이날 거리모금 행사이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영양실조와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이다. 밴드 〈온 더 스팟〉의 신나는 노래로 시작된 행사는 방송인 김병조씨와 아나운서 김미진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거리모금에 참여하는 방송인들이 무대로 올라와 인사를 하면서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사진 찍으려는 시민들로 무대주위는 북적거렸다.



이번 모금행사는 한지민씨, 윤소이씨, 서효림씨, 전예서씨, 이

지선씨 등 많은 방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드라마 작가 노희경씨를 비롯한 <갈뱃>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행사 내내 활기가 들었다.

방송인들이 직접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모금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흔쾌히 모금에 동참해 주셨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밝힌 소감에서 방송인 한지민씨는 “많은 분들의 참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감동을 나누어주었다.

또한 행사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받

혔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도움을 주신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님은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며 성금까지 기부해 주셨다.

천원의 기부로 굶주린 아이들이 1주일동안 먹을 음식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쉽게만 써왔던 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다.

오늘 모인 모금액은 제3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거리모금에 참여해주신 방송인과 사회봉사모임 <갈뱃>,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거리에 서다

5월5일은 어린이날!!

내가 어린이였을때에도... 지금도 어린이날은 변함없이 5월 5일이다.

내가 초등생시절엔 어린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가마솥에 끓인 우유와 옥수수빵을 주었다. 그 맛은 정말 기가막혀 크기와 양이 줄어드는 것이 마냥 안타깝기만 했었다.

지금은 풍요로워진 환경임에도 지구상에는 3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않게 놀라고 말았다. 때마침 오늘은 울산대공원에서 캠페인과 모금활동이 있기에 기꺼이 참석하였다.

JTS가 하고있는 일과 풍요롭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굶어죽는 어린이가 3초에 1명!!

시민들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듯한 표정들이고 몇몇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주머니를 털어 모금함에 투척하는 모습이 미래를 밝게한다.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회원 및 자원봉사자 모두들 수고하셨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매우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글 한국JTS 울산지부 | 권교중

처음 캠페인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열심히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액은 얼마 안 됐고 서툴렀지만 굶주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ㅎㅎ

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글 한국JTS 서울지부 | 이현정

6월 3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제3세계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JTS 거리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중의 한군데인 충대 중문 근처 롯데리아 앞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안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모금도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돈을 모은다는 생각보다 JTS를 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활동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명씩 짝을 지어서 충남대 중문에서 JTS 홍보 활동과 함께 모금활동을 펼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기꺼이 전단지를 받아주시고 모금에 도와주신 청주시민여러분, 대학교 학생들 넘 고맙습니다. 꾸벅~~



날이 저물어지고 모금활동 시간이 끝날 즈음 모두들 각자 모금한 모금통을 들고 활동 안내대로 모였습니다.

모금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는 마음공부가 한층 더 커져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고 모금을 했는지 나를 살펴봅니다. 행여 다른사람이 모금함에 돈을 넣거나 안넣거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내 주장에 맞추어 달라고 마음을 내지 않았나 살펴봅니다.



대학교 앞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의 해맑은 모습들이 오래 여운에 남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좁은문과 비싼 등록금으로 마음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이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

글 한국JTS 청주지부 | 이인자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 세상은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충남대학교 백미축제에 JTS 캠페인 진행-

김주원 | 한국JTS 대전지부



어린이날 캠페인 이후, 매월 하는 대전역 거리 모금 캠페인만 참석하면 되는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충남대학교 학생회에서 백미축제(5월 18일~20일) 때, JTS에서 참여해 캠페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매월 거리모금 위주의 캠페인을 열다가, 대외적인 큰 행사를 준비하려니 부담이 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했다.



평소 거리모금 캠페인 때 느낀 점이, 단순 모금에만 치중하지 말고 JTS를 알리는 홍보 위주의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서울본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봉사자들과 함께 해외봉사자와 정기후원회원 모집이란 목표를 정하고, 홍보판 제작과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간단한 이벤트도 마련 해, 축제 3일간의 캠페인에 돌입했다.

첫날, 봉사자들의 담당 역할을 나눠 맡았으나, 대부분이 뭘 해야 하는지 몰라 물품배치 등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날은 덥고 축제 기간임에도 학생들이 많지 않아 재미없고,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힘들었다.



‘우리 수준이 이런 큰 행사를 하기엔 미숙하기 그지없는데, 욕심만 낸 건가!’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 왔다. 그러나 모든 봉사자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니, 오후가 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준비한 인도전통차인 짜이를 맛보고, 홍보판을 보면서 제3세계 가난한 이웃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해외봉사에 관심을 갖고 상담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짜이차를 마시며 인도여행이 생각난다며 즐거워하는 남학생,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여학생, 모금함에 소중한 용돈을 넣고 행복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도 행복이 더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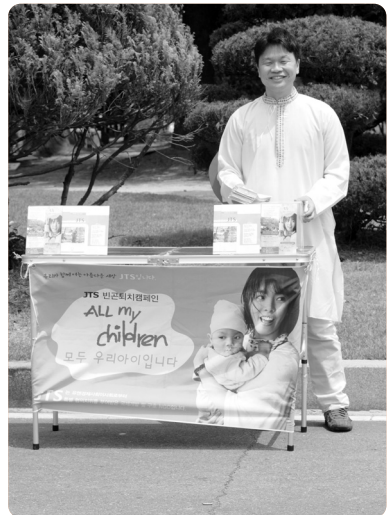
봉사자 중에 충남대에 재직 중인 김세정 교수님께서도 동료 교수님께 JTS를 알리며, 정기후원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주셨다.

해외봉사자는 한분도 섭외 하지는 못했으나, 대전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어 앞으로 함께 봉사활동하면 생기 발랄 해져, 활동력이 커지겠다는 희망이 생겨 즐거웠다.

이번 인연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기 캠페인을 열어, JTS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뿌리자는 목표가 생겨 하나씩 실행 중이다.

3일간 뜨거운 날씨에도 봉사자들 이끄시느라 수고하신 이제 상님과 뿌리양카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봉사자들의 손길과 3일간 관심 갖고 캠페인에 동참해 준 학생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생회 측에 감사하며, 역시 세상은 함께 해야 행복 하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 었다.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글 JTS 마산지부 | 이명숙



### 애광원 봄 소풍

- 2011년 4월 28일
- 경상남도 진주반성 수목원
- 거제 애광원 중증 장애인 20명과  
선생님 13명 참석

마산에서 30분정도 버스를 타고 진주 수목원에 도착했다. 소풍이라서인지 새로운 친구들 만날 생각에서인지 왠지 맘이 조금 설레인다. 날씨는 완전한 봄인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조금 쌀쌀하다. 봉사자 모두가 옷을 여미고 스카프로 목을 감싸고 햇빛있는 곳으로 삼삼오오 모여 안내자의 '장애우들과 같이 여행할 때의 주의사항'을 들으며 잠시 후에 도착할 애광원 친구들을 기다렸다. 애광원 버스 도착, 우리는 두 줄을 짝 만들어 열렬히 환영한다, 와~와~작작작.

드디어 내 파트너... 우~와~키도 크고 잘생긴 25살 그 이름 박동엽씨. 반갑게 달려가 동엽씨 동엽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지만 묵묵부답, 눈 한번 맞추어도 무표정한 얼굴, 이번에도 홀로 사랑만하고 헤어지려나보다.

깨끗한 신발, 깨끗한 옷, 말쑥한 얼굴들을 보니 애광원 선생님들이 이 한번의 나들이를 위해 노고가 많았음이 느껴진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애광원 선생님들께도 즐거운 휴식시간이 되도록 해주고 싶다.

이번이 '애광원 나들이' 세번째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애광원 친구와 막상 손을 잡으려니 선뜻 손을 잡지 못한다. 여전히 쑥스러운가 보다. 장갑을 끼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장갑을 낀 채 팔짱을 껴다. 동엽씨한테 미안했다. 장갑을 벗고 손을 살짝 잡아보았다. 순간, 아 참 따뜻하다. 미안함에 손에 힘을 약간주었다. 따뜻함이 전해져왔다. 조금 걷다가 손을 고쳐 잡아주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것 같다.

우리는 꽃길도 걷고 꽃내음도 맡으며 사진도 찍고 봄날의 여흥을 즐겼다. 근데 다정하게 사진 한번 찍으려니 왜그리 고개를 돌려버리는지 아무리 애써봐도 같은 방향을 보거나 혹은 방긋 웃는 그런 원하는 사진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동엽씨와 한 프레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비빔밥, 된장국, 호박죽, 잘게 썬 과일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아 있다. 우리의 동엽씨, 밥 잘 받아먹고, 죽 다먹고, 순한 아기가 여기 있네. (잠시동안만) 어이쿠 입에 음식물로 분무하고(나의 비빔밥에도, 얼굴에 분무할때는 시원하기도 ㅎㅎ)과일 손으로 집어먹고, 옆 테이블에 비스킷, 또 다른 선생님 밥까지 말릴 여유도 없이 먹어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화가 났다.

돌이켜보니 작년에 만난 장애우는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을 해서 오후에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었는데, 애광원 선생님께 애길 했더니 초능력을 가진 친구가 많대며 웃음을 주신다.

장애우들을 편안하고 자애롭게 대하시는 애광원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또 한번 느껴지는 시간이다. 당신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행복할거예요.

오후 즐거운 놀이시간, 신문으로 옷 만들어 최고의 패셔니스타가 나오고, 바람개비 만들어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잔디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아본다. 이 얼마만인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쪽빛 하늘, 높이높이 떠있는 하얀 조각구름... 그 구름에 내마음도 실어보고, 젊을날 최고의 나로 돌아가보기도 하고, 팔을 쪽뻗어 솜사탕도 만들어 보고...아! 오늘 누가 허락한 시간입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개비 돌리며 마무리하는 장소에 모여, 스님의 온화한 미소와 덕분에 잘 쉬었다는 인사말씀과 애광원 내에서도 한달 아니 일년에 한번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원장님의 말씀에는 가슴이 찡 울렸다.

그런 장애우들을 정기적으로 나들이 시켜주는 JTS에 많이 고마워하였다. 감동주는 인사말씀과 예쁜 화분도 선물로 받아오고, 조금 봉사하고 많이, 정신건강 많이 살찌우고 온 기분 좋은 하루였다. ✨



국내소식 \_ JTS가 만난 사람

# 100원으로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학교 짓는 아이들

한국 JTS | 배혜정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양평 시내에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모금함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작은 정성을 요청한다. 시민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쳐가지만 종종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모금함에 뺏뺏한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가기도 한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주뺏하던 아이들은 이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외친다.

이 아이들은 왜, 거리로 나오게 되었을까. 예쁜 나비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맞추어 입은 이 아이들은 바로 양평중학교 ‘나눔과 비움’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었다.

지난 10월, 양평중학교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쑤어쓰데이, 친구야 학교 가자’. 쑤어쓰데이는 캄보디아어로 안녕이라는 뜻으로, 이 학교에서는 1000만 원을 모금하여 캄보디아 오지마을의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성기 교장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의 전폭적 지지 아래 나눔과 비움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바자회, 거리모금, 돼지저금통 모으기, 100원 정기후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하고 있는데, 그 중 ‘100원 정기후원’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기부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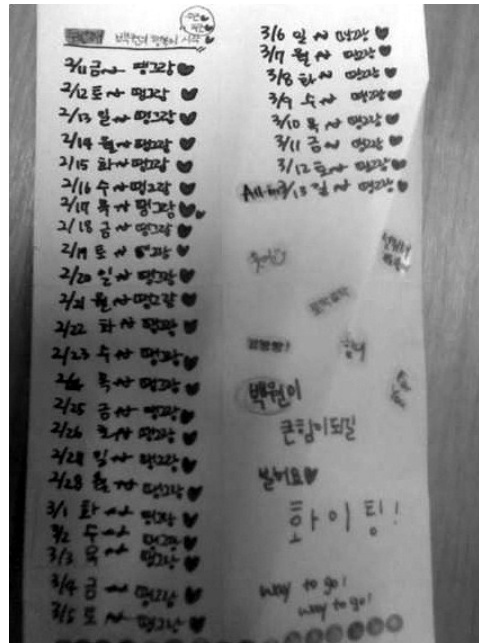
‘100원 정기후원’은 정기후원을 신청한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봉투를 나누어 주고 하루에 100원씩 모으도록 하여 다시 걷는 방식인데,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없으면서 하루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후원금도 모으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하루에 100원씩 30일이면 한 달에 3000원. 커피 한 잔 값밖에 되지 않지만 전교생 700여 명이 1년간 모으면 무려 2,52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된다. 현재 113명의 아이들이 정기후원을 신청하였고, 후원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모금액은 JTS에 전달되어 캄보디아 학교 건축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 6월 8일, JTS 김기진 공동대표가 양평중학교를 방문하여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차 모금액 230만 원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프로젝트 및 동아리 담당교사 정영수씨는 캄보디아 학교짓기를 함께 해 줄 상대로 JTS를 택한 이유를 묻자 “JTS는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을 찾아 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00%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어 모금한 돈이 전액 사업비로 쓰일 수 있어 믿음이 갔다”고 답했다.

자기 삶에 바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어른들에게 오히려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아이들. “학교를 튼튼하게 지어주세요!”라고 말하며 발랄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본다. ✨



국내소식 \_ JTS가 만난 사람

## 봉사활동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니 축제처럼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 광주과학고 봉사동아리 'JTS 한꾸네' -

이민하 광주과학고 1학년, 동아리 부장

JTS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금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 때는 JTS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어머니를 따라 다니는 정도였다. 그러다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과 함께 몇 차례 봉사활동을 해 보니 참 좋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어머니의 제안에 “한번 해 볼까?” 하는 맘이 생겼다.

우리 학교가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엄청 강조하기도 해서 그런지 봉사동아리 만들 것을 제안하니 11명의 친구들과 부모님이 모였다. 진짜 봉사 하고 싶은 사람, 친구 따라 온 사람, 부모님 강요(?)에 온 사람 등 구성원의 참여 동기가 다양했다. 봉사동아리 이름은 ‘한꾸네’. 전라도말로 ‘한꾸네’가 ‘함께’라는 뜻인데, 그냥 소리나는 대로 쓰기로 했다. 함께 활동하니 재미가 있고 보람은 배가 되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아직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동안 몇 번의 활동으로 봉사와 나눔도 배워야 할 수 있고 연습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묻고,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된 활동이 모







금이니까 모금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나까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축제처럼 신나고 재미있다. 이런 동아리가 다른 학교에도 많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민하:** 모금을 하다보면, 남을 돕는 일은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가능하다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현수:**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했지만 JTS를 알고, 실제 활동 후에는 정말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훈:** JTS활동으로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봉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서 좋다.

**박경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 한꾸네 활동을 계기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유혜원:** 모금운동을 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특히 동아리 한꾸네에서는 그 보람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몇 배나 더 뿌듯하다.

**박찬열:**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금활동, 독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지수:** 한꾸네라는 동아리에 내가 속한 것이 자랑스럽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수명:** 과학고에 입학하는 것, 봉사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꾸네, JTS 모두 잘 되어야 합니다.

**한승원:** 앞으로 JTS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고 JTS 한꾸네와 같은 봉사동아리가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희:** 처음에는 모금활동을 주로 한다가에 두렵고 망설여졌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 신나고 재미가 있다.

**박종민:** JTS활동으로 인해 앞으로 내게 찾아올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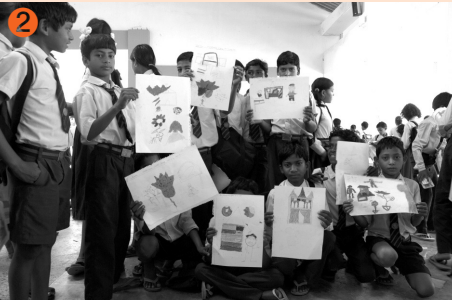
# 인도소식



## 1. 교육

### 1. 수자타 아카데미 3차 장학금 지원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난 3월부터 장학금 형태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을 리더와 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출석률을 기준으로 최종 20명을 다시 선별하였다.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거의 매일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장학금은 흥경 주님이 후원해주셨고 1인당 쌀 12Kg, 인도 콩 3Kg, 겨자 유 1리터가 지급되었다.



### 2. “한 학기 동안 난 무얼 하며 지냈을까?”

#### 초등학생 미술 수업 진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난 무얼 하며 지냈을까?”라는 주제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였다. 방학하기 전, 학생들이 스스로 한 학기를 정리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모습, 특별식으로 망고를 먹었던 모습 등을 기억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3.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진행

불기 2555년 인도의 부처님 오신 날은 한국보다 일주일 늦은 5월 17일이었다. 한낮 외부 기온이 이미 60도가 넘는 날씨였지만 10여분의 외빈을 포함 전체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자타 아카데미 뿌락보디홀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공연과 옥불의식이 있었고 이후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유미죽과 망고가 포함된 특별식이 지급되었다.



#### 4. 수자타 아카데미 여름방학 실시

수자타 아카데미가 한 달간의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방학 기간 중에 상급 교사들은 꼴가타 현장견학 학습이 예정되어 있고 상급생들은 3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동게스와리 전체 마을 주민들에게 구충제를 지급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5. 신규 자원 활동가 2명 파견

자원 활동가 2명이 새로이 인도 사업장에 파견되었다. 지역 상황과 업무 파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이세형님은 교육팀으로, 박명송님은 의료팀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 II. 의료

### 1. 저체중아 식량 지원

지바카 병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지역 15개 마을 5세 미만의 영유아 1,400여명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서 저체중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기초해 전체 600명의 저체중아와 엄마에게 영양식과 식량 지원이 이루어졌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분유와 종합영양제 시럽을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식량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콩, 겨자유 그리고 영양제 시럽이 지원되었다. 한편 모든 저체중아의 엄마들에게도 쌀 15Kg과 1달 분의 종합영양제가 지급되었다.

## 필리핀소식



### 1. TITSER(교사 워크숍)

5월 4일부터 7일까지 JTS 센터에서 제1회 교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12개 마을 23명의 선생님들이 모인 가운데 교수 학습 전반에 관한 기초 강의와 실습을 통해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2. 다물록 학교 건축 현장 방문

5월 13일, 14일 양일간 2011년 학교 건축 프로젝트 지역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다물록 시의 바삭(Basag), 키타스(Kitas), 발라(Bala) 세 곳으로 모두 2칸 짜리 학교가 지어질 예정이다.

### 3. 오버루킹 학교 증축 현장 방문

JTS는 오버루킹 마을의 학교 증축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5월 25일 JTS는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자재를 나르고 거꾸집 작업을 시작하였다.



# 후원인의 소리

적은 돈이지만 한사람 한사람  
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참~통장에 내용찍히는거요~  
지금은 한국제이티에스라고 찍하는데요,  
jts인도및제3세계, jts북한어린이지원등  
이런식으로 찍히면 참 좋겠는데..^\_^  
가능하다면 고려해주시م 좋겠습니다.  
-보령시 전정순-

작은돈이지만 배고픈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윤미정-

어쩌다 보니 후원연장을  
바로 하지 못했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윤재윤-

북한 자원봉사는 따로 없나요  
만들어주시면 하러 가겠습니다.바로  
-익산시 평화동 김달해-

그저 북한 어린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이은정-

고맙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실천하는  
당신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익산시 중산동 김동준-

작은 금액이지만,  
좋은 일에 잘 쓰이길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이향숙-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방법으로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하여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3동 이승욱-

일본 도호쿠 지방의 지진과 방사능  
피해에 대한 복구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진전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눔의 의미를 생각하며 생일상 차리는 대신  
후원을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강남구 개포동 이지원-

저도 크면  
봉사활동 할게요  
-청주시 김예성-

#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활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011년 4월1일-2011년 5월31일

문의전화 02-587-8995

|                 |          |          |          |           |          |
|-----------------|----------|----------|----------|-----------|----------|
| <b>인도및 제3세계</b> | 김명수      | P0054813 | 김종원      | P0056716  |          |
| (주)에프닷베이직       | 김명진      | P0056396 | 김중현      | P0055676  |          |
| P0057619        | 김무영      | P0057544 | 김주영      | P0055821  |          |
| 강나현             | P0056998 | 김문자      | P0003948 | 김준호       | P0056487 |
| 강문중             | P0027956 | 김미진      | P0050706 | 김진선       | P0057200 |
| 강보경             | P0056888 | 김미향      | P0043465 | 김진연       | P0057116 |
| 강보영             | P0055794 | 김민준      | P0057548 | 김태경       | P0055603 |
| 강정민             | P0056886 | 김선근      | P0052856 | 김태연       | P0056650 |
| 강주희             | P0056164 | 김선아      | P0056052 | 김태희       | P0055703 |
| 강현분             | P0050748 | 김성규      | P0057777 | 김하량       | P0055604 |
| 강환분             | P0002273 | 김성현      | P0055599 | 김현성       | P0057207 |
| 강희선             | P0002673 | 김성환      | P0031668 | 김현욱       | P0055692 |
| 고민희             | P0057526 | 김소순      | P0057314 | 김형수       | P0048524 |
| 고용재             | P0056227 | 김수연      | P0056499 | 김형우       | P0056938 |
| 고창훈             | P0037561 | 김순후      | P0049640 | 김혜숙       | P0056881 |
| 공양자             | P0057068 | 김승운      | P0056414 | 김혜옥       | P0047646 |
| 공윤경             | P0056872 | 김승찬      | P0055598 | 김혜정       | P0042163 |
| 공정운             | P0044990 | 김애경      | P0055665 | 김혜정       | P0055338 |
| 구고은             | P0056162 | 김연수      | P0043821 | 김희선       | P0057550 |
| 권경호             | P0054944 | 김연수      | P0056567 | 김희수       | P0056098 |
| 권미리             | P0057043 | 김연지      | P0055672 | 김희정       | P0051923 |
| 권민성             | P0053235 | 김영석      | P0057547 | 남송현       | P0056408 |
| 권석현             | P0055571 | 김영실      | P0056417 | 남유정       | P0057319 |
| 관용희             | P0058060 | 김영욱      | P0029947 | 남희진       | P0057320 |
| 관진우             | P0056398 | 김옥금      | P0045933 | 남희경       | P0055644 |
| 관진욱             | P0054383 | 김옥수      | P0056920 | 라마어린이집    |          |
| 김경선             | P0055837 | 김유희      | P0050696 |           | S0056391 |
| 김광애             | P0055470 | 김은성      | P0057212 | 류양주       | P0055343 |
| 김광현             | P0051332 | 김은솔      | P0055602 | 명동관광특구협의회 |          |
| 김길주             | P0055831 | 김은정      | P0056941 |           | S0057318 |
| 김대곤             | P0055641 | 김재명      | P0055864 | 모듬삼방      | P0058050 |
| 김도서             | P0055413 | 김재열      | P0049600 | 모윤숙       | P0056397 |
| 김동식             | P0056418 | 김정은      | P0056410 | 박경희       | P0054599 |
| 김동우             | P0055257 | 김정자      | P0056568 | 박기태       | P0055591 |
|                 |          | 김정현      | P0057454 | 박두산       | P0056629 |

|     |          |       |          |        |          |
|-----|----------|-------|----------|--------|----------|
| 박말레 | P0040615 | 백선옥   | P0057640 | 오석희    | P0056403 |
| 박말선 | P0055163 | 백은하   | P0054808 | 오승준    | P0055608 |
| 박미경 | P0055883 | 보명사   | P0057430 | 오용순    | P0056435 |
| 박미애 | P0056569 | 서기원   | P0041949 | 오은희    | P0055518 |
| 박미옥 | P0055694 | 서미경   | P0054176 | 오정욱    | P0057784 |
| 박범석 | P0056157 | 서영덕   | P0057523 | 용문요가회원 |          |
| 박범주 | P0056158 | 서윤지   | P0056586 |        | P0057692 |
| 박분자 | P0057720 | 서쾌수   | P0056710 | 원형문    | P0037625 |
| 박상우 | P0057055 | 성순경   | P0056525 | 유광희    | P0051826 |
| 박상표 | P0057401 | 소광순   | P0056390 | 유나미    | P0056402 |
| 박성근 | P0056242 | 소재민   | 이순옥      | 유미환    | P0056405 |
| 박성현 | P0055572 |       | P0056429 | 유순호    | P0012596 |
| 박세종 | P0056159 | 손동선   | P0045943 | 유영희    | P0055653 |
| 박영미 | P0056571 | 손병목   | P0047168 | 유은목    | P0048972 |
| 박영완 | P0056411 | 손성규   | P0040660 | 유재룡    | P0056839 |
| 박영호 | P0055690 | 손태순   | P0057024 | 윤갑인    | P0056866 |
| 박옥자 | P0056630 | 송미숙   | P0048853 | 윤광열    | P0025765 |
| 박윤범 | P0055479 | 신명예   | P0056399 | 윤나는    | P0056868 |
| 박정숙 | P0057036 | 신여일   | P0057881 | 윤미정    | P0057391 |
| 박주연 | P0028946 | 신연화   | P0006792 | 윤상호    | P0057456 |
| 박준영 | P0057041 | 신현오   | P0057880 | 윤선숙    | P0057443 |
| 박창범 | P0055480 | 신혜재   | P0055923 | 윤정규    | P0056849 |
| 박형준 | P0056590 | 심수현   | P0049318 | 윤진희    | P0044302 |
| 박혜리 | P0054982 | 아름이누나 |          | 윤태덕    | P0055590 |
| 방희철 | P0053628 |       | P0055403 | 음승혜    | P0034993 |
| 배규삼 | P0004216 | 안인혁   | P0056324 | 이강희    | P0055370 |
| 배영오 | P0056313 | 안현선   | P0057155 | 이건재    | P0050513 |
| 배의웅 | P0056572 | 안혜령   | P0056591 | 이경자    | P0046490 |
| 배정범 | P0056578 | 양은임   | P0057457 | 이광희    | P0027011 |
| 배정숙 | P0011800 | 양태민   | P0057223 | 이기림    | P0011060 |
| 배정한 | P0004876 | 여성희   | P0055578 | 이나리아   | P0057118 |
| 배준혁 | P0056573 | 예명숙   | P0055171 | 이동국    | P0056488 |
| 배지원 | P0056574 | 예승연   | P0047001 | 이동현    | P0054833 |
| 배해정 | P0057026 | 오남순   | P0022192 | 이명자    | P0028510 |
| 백명정 | P0055580 | 오상호   | P0029455 | 이명학    | P0056620 |

|         |          |     |          |     |          |
|---------|----------|-----|----------|-----|----------|
| 이명화     | P0042916 | 이지연 | P0043342 | 정미라 | P0044413 |
| 이민정     | P0057071 | 이지연 | P0056718 | 정미주 | P0056323 |
| 이병두     | P0055667 | 이지현 | P0057593 | 정미화 | P0056421 |
| 이병희     | P0056201 | 이창현 | P0057021 | 정비호 | P0055600 |
| 이상건     | P0049498 | 이춘희 | P0057022 | 정신태 | P0057117 |
| 이상용     | P0056256 | 이태경 | P0056394 | 정숙희 | P0056437 |
| 이선애     | P0037127 | 이현봉 | P0056604 | 정순명 | P0054376 |
| 이소연     | P0055346 | 이현웅 | P0057020 | 정양심 | P0049248 |
| 이수정     | P0042860 | 이형순 | P0055426 | 정윤지 | P0055414 |
| 이순경     | P0056835 | 이형인 | P0055405 | 정일화 | P0056316 |
| 이순덕     | P0054508 | 이휘태 | P0055833 | 정재훈 | P0056416 |
| 이순분     | P0055730 | 이희영 | P0056392 | 정정희 | P0049673 |
| 이순주     | P0055739 | 임경화 | P0056068 | 정주홍 | P0057393 |
| 이승연     | P0056725 | 임성수 | P0053738 | 정진순 | P0055894 |
| 이시윤     | P0055345 | 임영미 | P0050069 | 정현복 | P0056580 |
| 이영훈     | P0023180 | 임혜진 | P0056087 | 정현수 | P0055511 |
| 이예란     | P0057225 | 임희자 | P0057224 | 정혜민 | P0057392 |
| 이용범     | P0057053 | 장갑순 | P0056168 | 조경아 | P0044366 |
| 이용숙     | P0055390 | 장미경 | P0056723 | 조경임 | P0056161 |
| 이용승     | P0057529 | 장복선 | P0056400 | 조대현 | P0056153 |
| 이우석     | P0055654 | 장윤성 | P0035016 | 조소현 | P0056152 |
| 이원영     | P0054422 | 정은숙 | P0004229 | 조순주 | P0057426 |
| 이유명호환의원 |          | 장희홍 | P0057044 | 조승희 | P0057040 |
|         | P0055605 | 전금숙 | P0057057 | 조은숙 | P0056407 |
| 이유민     | P0042069 | 전소이 | P0056163 | 조해광 | P0055428 |
| 이용규     | P0056937 | 전수연 | P0057415 | 조현숙 | P0057142 |
| 이인자     | P0016802 | 전영래 | P0056727 | 조현욱 | P0056774 |
| 이정명     | P0055646 | 전재현 | P0045175 | 주미영 | P0057035 |
| 이정설     | P0056054 | 전정희 | P0003275 | 주복명 | P0057038 |
| 이정혜     | P0057076 | 전태호 | P0056259 | 지종  | P0056584 |
| 이종선     | P0055691 | 전혜숙 | P0056999 | 진경중 | P0056165 |
| 이종학     | P0032513 | 전희옥 | P0044054 | 진은정 | P0055668 |
| 이주학     | P0055795 | 정국현 | P0057195 | 채민경 | P0045648 |
| 이주환     | P0055344 | 장남경 | P0029922 | 천해경 | P0057350 |
| 이준행     | P0056598 | 장다슬 | P0057042 | 최경순 | P0052144 |

|                |          |          |          |              |          |
|----------------|----------|----------|----------|--------------|----------|
| 최미혜            | P0056560 | 김미향      | P0043465 | 장금례          | P0046230 |
| 최순분            | P0010858 | 김벼울      | P0056705 | 장해경          | P0046900 |
| 최은영            | P0056579 | 김성규      | P0057777 | 전영래          | P0056727 |
| 최은주            | P0044150 | 김영숙      | P0055570 | 전태호          | P0056259 |
| 타비             | P0054637 | 김영실      | P0056417 | 정국현          | P0057195 |
| 태한성            | P0043176 | 김은숙      | P0056440 | 정상열          | P0018458 |
| 하만석            | P0055456 | 김중복      | P0003312 | 정윤지          | P0055414 |
| 한경민            | P0056851 | 김철한      | P0042200 | 정지예          | P0040364 |
| 한덕주            | P0046005 | 김태윤      | P0053887 | 정진순          | P0055894 |
| 한유경            | P0057628 | 김해정      | P0042163 | 조대현          | P0056153 |
| 한이경            | P0051868 | 라마어린이집   |          | 조문성          | P0039600 |
| 한재호            | P0049047 | S0056391 |          | 조소현          | P0056152 |
| 허성범            | P0057530 | 박경희      | P0054599 | 진경중          | P0056165 |
| 허영숙            | P0056532 | 박분자      | P0057720 | 진은정          | P0055668 |
| 허운영            | P0056449 | 배정숙      | P0057074 | 최순분          | P0010858 |
| 허인영            | P0047756 | 심무준      | P0055508 | 최유경          | P0057535 |
| 허재영            | P0056855 | 안소연      | P0037065 | 최천           | P0056994 |
| 현경             | P0055722 | 양태민      | P0057223 | 한이경          | P0051868 |
| 홍숙이            | P0039624 | 오동욱      | P0009998 | 허영숙          | P0056532 |
| 황공주            | P0050040 | 오동현      | P0051797 | 황서현          | P0055068 |
| 황미경            | P0048813 | 유나미      | P0056402 |              |          |
| 황미순            | P0054654 | 유미환      | P0056405 |              |          |
| 황성철            | P0057135 | 유은목      | P0048972 | <b>필 리 핀</b> |          |
| 황인             | P0056409 | 윤정규      | P0056849 | 박분자          | P0057720 |
| 황차상            | P0058004 | 은병욱      | P0039254 | 서영덕          | P0057523 |
|                |          | 이강희      | P0055370 | 은병욱          | P0039254 |
|                |          | 이건재      | P0050513 | 이혜정          | P0057558 |
| <b>결 핵 퇴 치</b> |          | 이경호      | P0053068 | 정국현          | P0057195 |
| 고건훈            | P0055478 | 이성문      | P0056423 | 정진순          | P0055894 |
| 고용재            | P0056227 | 이영훈      | P0023180 | 최옥희          | P0056249 |
| 권만성            | P0053235 | 이예란      | P0057225 |              |          |
| 권원상            | P0057616 | 이유명호환의원  |          |              |          |
| 김도서            | P0055413 | P0055605 |          |              |          |
| 김명진            | P0056396 | 이주학      | P0055795 |              |          |
| 김미자            | P0042486 | 이혜정      | P0057558 |              |          |

# 특별후원금

2011년 4월1일-2011년 5월31일

|                  |            |         |           |
|------------------|------------|---------|-----------|
| <b>결 핵 퇴 치</b>   | 100,000    | 김정미     | 100,000   |
| 김민영건강기원          | 권우혁 50,000 | 김정운     | 500,000   |
|                  | 1,000,000  | 기덕규     | 500,000   |
| 김버울              | 46,000     | 기원규     | 500,000   |
| 김은숙              | 30,000     | 김경택     | 1,000,000 |
| 김정란              | 100,000    | 김광모     | 30,000    |
| 김철한              | 74,810     | 김나영     | 100,000   |
| 이예란              | 20,000     | 김남수     | 400,000   |
| 이항순              | 100,000    | 김남순     | 50,000    |
| 장광철              | 100,000    | 김동원     | 100,000   |
| 장선이              | 150,000    | 김래근     | 500,000   |
| 전찬성              | 30,000     | 김미정     | 379,000   |
| 조문성              | 100,000    | 김민규     | 200,000   |
| 황서현              | 10,000     | 김민지     | 남경축원      |
| 황용규영가            | 50,000     |         | 남북평화통일    |
|                  |            | 김범주     | 100,000   |
|                  |            | 김범준     | 30,000    |
| <b>국 내 사 업 비</b> | 김삼선        | 52,980  | 류영자       |
| 김은숙              | 100,000    | 김상설     | 50,000    |
| 서춘희              | 50,000     | 김상철     | 90,000    |
| 송현주              | 100,000    | 김선옥     | 100,000   |
| 애광원              | 100,000    | 김선호     | 90,000    |
| 이숙미              | 100,000    | 김성남     | 100,000   |
| 최찬일              | 100,000    | 김성운     | 30,000    |
|                  |            | 김세정     | 105,000   |
|                  |            | 김수미     | 223,540   |
| <b>북 한 결 연</b>   | 김순옥-천도재보시  | 박명복     | 250,000   |
| (주)헤르메스 미디어      | 1,000,000  | 박명주     | 120,000   |
|                  | 509,300    | 김승운     | 13,000    |
| 김룡초교 5학년 2반      | 김애자        | 100,000 | 박분남       |
|                  | 119,800    | 김영숙     | 100,000   |
| 강도연              | 100,000    | 김영진     | 300,000   |
| 강동훈              | 10,000     | 김예림     | 50,000    |
| 강재연              | 111,620    | 김원희     | 50,000    |
| 고창훈              | 300,000    | 김유진     | 1,000,000 |
| 공연표              | 100,000    | 김유진     | 50,000    |
| 공원란              | 100,000    | 김은숙     | 1,000,000 |
| 공원란              | 100,000    | 김은숙생일축하 | 박정숙       |
| 곽인숙              | 100,000    |         | 100,000   |
| 구순남              | 300,000    | 김인복     | 500,000   |
| 권동혁              | 50,000     | 김재기     | 50,000    |
| 권동현생일축하          | 김정미        | 600,000 | 박지영       |

문의전화 02-587-8995

|             |            |           |           |           |           |
|-------------|------------|-----------|-----------|-----------|-----------|
| 박지환건강쾌유     | 500,000    | 오인숙       | 100,000   | 임남환       | 100,000   |
| 박태화         | 110,000    | 오철        | 100,000   | 임소영       | 20,000    |
| 배병직         | 100,000    | 용문요가회원    | 50,000    | 임양호       | 40,000    |
| 백기순         | 30,000     | 우순점       | 100,000   | 임완수       | 30,000    |
| 백동하         | 50,000     | 우종현       | 100,000   | 장병윤       | 100,000   |
| 법륜스님-포스코청암상 | 유공위        | 50,000    | 장성호       | 150,000   |           |
| 수상          | 95,600,000 | 유상민생일축하   | 150,000   | 장수연       | 30,000    |
| 변명숙         | 84,060     | 유재연       | 67,000    | 장영은       | 150,000   |
| 변지숙         | 160,000    | 유정상       | 100,000   | 장진영       | 30,000    |
| 변진혜         | 10,000     | 윤명옥       | 100,000   | 장현정       | 300,000   |
| 북한어린이돕기     | 윤병진        | 50,000    | 전미화       | 20,000    |           |
|             | 30,000     | 윤여철       | 100,000   | 전재현       | 2,000     |
| 북한어린이지원합니다  | 윤영화        | 50,000    | 전태수       | 28,990    |           |
|             | 30,000     | 윤정희       | 1,000,000 | 정복남       | 30,000    |
| 서동찬         | 80,470     | 윤화자       | 100,000   | 정소연       | 50,000    |
| 서창구         | 300,000    | 윤희진       | 100,000   | 정소희       | 200,000   |
| 서창임         | 50,000     | 은평중       | 31,870    | 정수진       | 50,000    |
| 성난주         | 20,720     | 이강일       | 30,000    | 정연규, 정경훈  | 116,500   |
| 송수명         | 100,000    | 이관규       | 50,000    | 정영숙       | 111,500   |
| 송지현         | 100,000    | 이광성       | 100,000   | 정우현       | 200,000   |
| 신경희         | 100,000    | 이나영       | 30,000    | 정윤희       | 60,040    |
| 신명순         | 300,000    | 이동진       | 1,060,000 | 정의석       | 30,000    |
| 신수연         | 1,000,000  | 이명자       | 100,000   | 정인숙       | 300,000   |
| 신여일         | 30,000     | 이병석       | 50,000    | 정현경       | 20,000    |
| 신영찬         | 100,000    | 이부연       | 130,000   | 정혜정       | 100,000   |
| 신현심영가왕생극락   | 이상민        | 20,000    | 조미경       | 1,000,000 |           |
|             | 3,000,000  | 이상숙       | 100,000   | 조성진       | 400,000   |
| 신현오         | 50,000     | 이성원       | 100,000   | 조윤희       | 30,000    |
| 실상사어린이법회    | 이소영        | 1,000,000 | 조해숙       | 20,000    |           |
|             | 337,000    | 이수연       | 100,000   | 조현철영가왕생극락 |           |
| 심계숙         | 100,000    | 이순희       | 100,000   |           |           |
| 심미경         | 400,000    | 이심용       | 50,000    | 조혜진       | 100,000   |
| 심성혜         | 500,000    | 이영미       | 200,000   | 조홍식       | 34,220    |
| 이행가요센터      | 300,000    | 이영진       | 39,260    | 지은아       | 5,000,000 |
| 안병환         | 50,000     | 이월임       | 30,000    | 진숙희       | 100,000   |
| 양길수         | 1,000,000  | 이위선       | 203,000   | 참치마트      | 10,000    |
| 양명숙         | 50,000     | 이인표       | 50,000    | 채경실       | 70,000    |
| 양미애         | 50,000     | 이지원       | 300,000   | 채효정       | 3,000,000 |
| 양승희         | 50,000     | 이충희       | 10,000    | 초록빛바다어린이집 |           |
| 양태경         | 100,000    | 이항숙       | 38,370    |           |           |
| 여인옥         | 200,000    | 이혁재       | 130,000   | 최근대       | 80,000    |
| 오익숙         | 100,000    | 이효선       | 50,000    | 최남순       | 50,000    |



|                   |           |          |            |           |           |
|-------------------|-----------|----------|------------|-----------|-----------|
| 최병화               | 98,010    | 강정민      | 300,000    | 김정미       | 100,000   |
| 최보경               | 50,000    | 강현분      | 23,860     | 김정호       | 1,000,000 |
| 최성희               | 1,000,000 | 고혜원      | 200,000    | 김지연       | 160,000   |
| 최유신               | 20,000    | 공양자      | 50,000     | 김진연       | 1,000,000 |
| 최윤숙               | 30,000    | 공윤경      | 100,000    | 김형수       | 26,220    |
| 최은아               | 30,000    | 공정은      | 5,000      | 김형우       | 50,000    |
| 최창숙               | 3,871,410 | 교각스님     | 500,000    | 김희선       | 204,000   |
| 최행규(김숙경)          | 200,000   | 권용희      | 50,000     | 남유선       | 60,000    |
| 타비                | 1,000     | 권진욱      | 100,000    | 도달선       | 100,000   |
| 하숙희               | 50,000    | 권현숙      | 10,000     | 동래야간불대모금함 |           |
| 하은이               | 100,000   | 김경화-북경   | 2000위안     |           | 12,000    |
| 한지원               | 60,000    | 김동우      | 10,000     | 마산법당재비    |           |
| 허태경               | 100,000   | 김명수      | 25,000     |           | 780,000   |
| 허향미               | 608,401   | 김무영-필리핀  | 100,000    | 명동관광특구협의회 |           |
| 홍성관               | 500,000   | 김문자      | 100,000    |           | 1,000,000 |
| 홍숙이               | 50,000    | 김미정      | 100,000    | 박노옥       | 60,000    |
| 황기태, 최양자          | 100,000   | 김민규생일축하  |            | 박두산       | 30,000    |
| 황순옥               | 100,000   |          | 1,000,000  | 박성현       | 100,000   |
| 황의탁               | 1,400,000 | 김선근      | 28,850     | 박양숙       | 200,000   |
| 황주영               | 30,000    | 김선미      | 100,000    | 박재운       | 30,000    |
|                   |           | 김선호      | 30,000     | 박정하       | 20,000    |
|                   |           | 김선호-필리핀  | 30,000     | 박정하       | 40,000    |
| <b>인도 모자보건</b>    |           | 김성초      | 100,000    | 박주연-필리핀   | 50,000    |
| 권민수               | 50,000    | 김성환      | 300,000    | 배규삼       | 40,100    |
| 권에진               | 50,000    | 김성훈      | 4,000      | 배산        | 50,000    |
| 김혜진               | 5,000     | 김소영      | 200,000    | 배정숙       | 200,000   |
| 문의숙               | 100,000   | 김수연      | 60,000     | 백선옥       | 20,000    |
| 박성옥               | 30,000    | 김순호      | 660,000    | 변영덕       | 30,000    |
| 윤명옥               | 50,000    | 김승은      | 11,000     | 보명사       | 300,000   |
| 이민주, 이선재          | 50,000    | 김승은      | 12,000     | 쁘리양카      | 2,000,000 |
| 이주형               | 50,000    | 김신규      | 150,000    | 서기원       | 20,000    |
| 최보경               | 50,000    | 김연수      | 1,000,000  | 서울법당모금함   | 10,000    |
|                   |           | 김연지      | 100,000    | 성순경       | 50,000    |
|                   |           | 김영석      | 20,000     | 소재민,이순옥   | 300,000   |
| <b>인도 및 기타 후원</b> |           | 김영승-인도교복 |            | 손동선       | 100,000   |
| (주)블루라이팅          |           |          | 10,000,000 | 손동선-필리핀   | 40,000    |
|                   | 1,900,000 | 김영호      | 30,000     | 손병목       | 500,000   |
| 75차개달음의장          |           | 김용훈      | 90,100     | 손성규       | 20,000    |
|                   | 70,000    | 김이숙      | 1,000,000  | 시에틀정토회    | 100,000   |
| 86차일상에서깨어있기       |           | 김재명      | 150,000    | 신여일       | 30,000    |
|                   | 652,000   | 김재춘      | 50,000     | 신인균       | 649,920   |
| 강문중               | 100,000   | 김정란      | 100,000    | 신진아       | 100,000   |

|              |            |                  |            |             |         |
|--------------|------------|------------------|------------|-------------|---------|
| 신천중학교2학년1반   | 임남환        | 550,000          | 김광용        | 20,000      |         |
|              | 50,000     | 임선영              | 500,000    | 김령          | 100,000 |
| 신한카드         | 158,178    | 장영민              | 10,000,000 | 김민정         | 50,000  |
| 신현오          | 50,000     | 장윤성              | 25,420     | 김선정         | 10,000  |
| 신형철          | 100,000    | 전수연              | 30,000     | 김선향         | 2,000   |
| 양재화          | 100,000    | 전재현-필리핀          | 2,500      | 김선호         | 50,000  |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 장남식        | 10,000           | 김순호        | 1,000,000   |         |
| (주)          | 34,000     | 정선태              | 1,000,000  | 김용근         | 60,000  |
| 오남순          | 72,000     | 정수진              | 50,000     | 김은숙         | 100,000 |
| 오미정-북경       | 2500위안     | 장양심              | 50,000     | 김은정         | 100,000 |
| 오이탁사업반창      | 장인숙        | 5,000            | 김재춘        | 100,000     |         |
|              | 500,000    | 장재훈              | 1,000,000  | 김창모         | 10,000  |
| 오장욱          | 30,000     | 정도법당재비           | 2,000,000  | 김춘동         | 100,000 |
| 윤문요기회원       | 50,000     | 조정희              | 20,000,000 | 김희정         | 10,000  |
| 유순호          | 26,490     | 조해광              | 420,000    | 남유선         | 100,000 |
| 윤광열          | 90,000     | 조효근첫똥축하          |            | 박경숙         | 30,000  |
| 윤분조영가왕생극락    |            |                  | 1,000,000  | 박미희         | 200,000 |
|              | 2,000,000  | 종수스님             | 1,200,000  | 박미희         | 10,000  |
| 윤정숙          | 300,000    | 지종스님             | 1,500,000  | 박민주         | 30,000  |
| 음승혜          | 50,000     | 천영희              | 16,450     | 박선영         | 20,000  |
| 이경미          | 14,000     | 최미혜              | 10,000     | 박승우         | 30,000  |
| 이근복영가-인도네시아  | 최은주        | 33,440           | 박형진        | 30,000      |         |
| 유치원건축        | 10,000,000 | 타비               | 1,000      | 배일동         | 1,000   |
| 이근복영가-인도 학교건 | 태한성        | 26,160           | 변성준        | 20,000      |         |
| 축            | 10,000,000 | 허만석              | 30,000     | 서예원         | 30,000  |
| 이기림          | 50,000     | 한경이              | 140,000    | 서울법당지진모금함   |         |
| 아나리아         | 1,500,000  | 한덕주              | 500,000    |             | 21,500  |
| 이동현          | 50,000     | 한재호              | 100,000    | 서정순         | 100,000 |
| 이명자          | 100,000    | 한정희              | 1,000,000  | 선정숙         | 10,000  |
| 이미경-필리핀      | 해피빈        | 501,600          | 설상일        | 20,000      |         |
|              | 500,000    | 홍숙이              | 100,000    | 손동선         | 10,000  |
| 이세규          | 100,000    |                  |            | 손동선         | 10,000  |
| 이수정-필리핀      | 10,000     |                  |            | 송종필         | 100,000 |
| 이승옥          | 100,000    | <b>해 외 긴급 구호</b> |            | 신문자         | 20,000  |
| 이영아          | 50,000     | (주)위버인터랙티브       |            | 아행가요가센터     |         |
| 이재하          | 100,000    |                  | 500,000    |             | 300,000 |
| 이정민-유물파기     | 강선영        | 100,000          | 안재현        | 50,000      |         |
|              | 1,000,000  | 강장근              | 50,000     | 양평중3학년5반지진모 |         |
| 이정해          | 52,500     | 강정숙              | 50,000     | 금           | 41,200  |
| 이종학          | 1,000,000  | 강희선              | 50,000     | 오성준         | 100,000 |
| 이지현          | 100,000    | 고태연              | 30,000     | 오은숙         | 20,000  |
| 이현블          | 10,000     | 김경옥              | 50,000     | 오진미         | 50,000  |

|             |         |                 |                    |                      |          |
|-------------|---------|-----------------|--------------------|----------------------|----------|
| 울산정토회지진모금함  | 최양자     | 50,000          | Freau Poe park     | \$35                 |          |
|             | 18,000  | 최윤희             | 50,000             | 임선희                  | \$40     |
| 유윤식         | 50,000  | 최재경             | 10,000             | Gina Ryu             | \$500    |
| 육연수영가왕생극락   | 최한결     | 100,000         | YoungJunLee&Hyunjo |                      |          |
|             | 50,000  | 포항법당지진모금함       | o Yoon             | \$200                |          |
| 윤숙현         | 100,000 |                 | 127,000            | Hui Yong Raliff      | \$30     |
| 이미경         | 5,000   | 하지민             | 10,000             | Young Tae Choi       | \$100    |
| 이성애         | 10,000  | 한혜자             | 20,000             | 김숙현                  | \$90     |
| 이세열         | 10,000  | 하재영             | 10,000             | Man Sung Choi        | \$20     |
| 이소현         | 100,000 | 홍명익             | 30,000             | 최경숙                  | \$151    |
| 이수연         | 20,000  | 홍희경             | 10,000             | 하일숙                  | \$90     |
| 이명철-아이티     | 황기태     | 50,000          | 이귀염                | \$200                |          |
|             | 30,000  | 황원주             | 50,000             | Laurren Carre        | \$50     |
| 이외숙         | 30,000  |                 |                    | Freaud Poe Park\$105 |          |
| 이은영         | 10,000  | <b>해 외 정 토회</b> |                    | 시에틀정토회               | \$135    |
| 이지원         | 300,000 | 이정선             | \$200              | Dong Yi              | \$200    |
| 이향숙         | 30,000  | 김영숙, 김정희        |                    | 이준자                  | \$1,000  |
| 인도수자타이카데미지진 | \$2,400 |                 |                    | 손정훈                  | \$100    |
| 모금          | 40,400  | Myung Rye Lee   |                    | Magaret Ahn          | \$100    |
| 일산법당지진모금함   |         | \$10,000        |                    | 김명호                  | \$200    |
|             | 124,000 | Yong S Kim      | \$2,400            | 최만성                  | \$20     |
| 임재찬         | 20,000  | Emmy Paik       | \$400              | 양영주                  | \$20     |
| 장기찬         | 30,000  | 정제니             | \$1,000            | 하정옥                  | \$200    |
| 전미연         | 40,000  | 잭슨빌정토회          | \$605              | 유정은                  | \$100    |
| 정나영         | 50,000  | Myung Kim       | \$200              | 강희승                  | \$100    |
| 정미화         | 32,000  | Mr.Chuk         | \$400              | 위싱턴정토회               | \$916,03 |
| 정민호         | 20,000  | 박지영             | \$50               | 북경김경희                | 2500위안   |
| 정영수         | 100,000 | Sook H Park     | \$200              | 북경오미정                | 2500위안   |
| 정유선         | 50,000  | Dong Keun Lee   | \$60               |                      |          |
| 정윤희         | 300,000 | Marayan Kim     | \$2,000            | <b>차 용 금 : 100 명</b> |          |
| 정현주         | 100,000 | 이혜정             | \$40               | <b>후 원 모 집 명 단</b>   |          |
| 정호준         | 10,000  | 김학로             | \$50               | 강영숙                  | 10,000   |
| 조명숙         | 50,000  | 한규희             | \$50               | 강희석                  | 10,000   |
| 조정훈         | 20,000  | 최재동             | \$100              | 고영남                  | 50,000   |
| 조태영         | 28,890  | 주상휴             | \$100              | 고재동                  | 30,000   |
| 차욱진         | 100,000 | 하주홍             | \$100              | 김광오                  | 30,000   |
| 창원법당지진모금함   | 동전모금    | \$45.55         |                    | 김구동                  | 30,000   |
|             | 22,000  | 민덕홍             | \$100              | 김기숙                  | 20,000   |
| 채유빈         | 100,000 | 독일정토회           | \$442.49           | 김기현                  | 10,000   |
| 최동선         | 5,000   | 밴쿠버정토회          | \$340              | 김나윤                  | 10,000   |
| 최말숙         | 23,000  | Dong Yi         | \$200              | 김대성                  | 10,000   |
| 최상숙         | 20,000  | 김윤진             | \$240              | 김문숙                  | 50,000   |

|      |        |      |         |     |        |
|------|--------|------|---------|-----|--------|
| 김성수  | 20,000 | 유주영  | 10,000  | 홍경미 | 10,000 |
| 김영자  | 30,000 | 윤순희  | 200,000 | 홍승주 | 10,000 |
| 김재동  | 50,000 | 이광민  | 10,000  | 홍현숙 | 10,000 |
| 김정수  | 30,000 | 이광섭  | 10,000  | 황미경 | 50,000 |
| 김정숙  | 20,000 | 이금옥  | 50,000  | 황미현 | 10,000 |
| 김종명  | 10,000 | 이기연  | 10,000  | 황봉희 | 20,000 |
| 김준현  | 10,000 | 이미라  | 30,000  |     |        |
| 김태운  | 20,000 | 이상학  | 10,000  |     |        |
| 김현종  | 50,000 | 이선림  | 20,000  |     |        |
| 김형우  | 10,000 | 이성택  | 10,000  |     |        |
| 나종인  | 10,000 | 이수희  | 10,000  |     |        |
| 류연재  | 20,000 | 이순자  | 20,000  |     |        |
| 무진스님 | 30,000 | 이유섭  | 10,000  |     |        |
| 문형순  | 10,000 | 이은숙  | 20,000  |     |        |
| 박경숙  | 10,000 | 이정화  | 20,000  |     |        |
| 박영순  | 10,000 | 이종두  | 30,000  |     |        |
| 박용대  | 10,000 | 이찬영  | 10,000  |     |        |
| 박용제  | 50,000 | 이현도  | 50,000  |     |        |
| 박종현  | 20,000 | 이화순  | 10,000  |     |        |
| 범교스님 | 50,000 | 익명   | 5,000   |     |        |
| 보성   | 50,000 | 일녘스님 | 30,000  |     |        |
| 서동형  | 10,000 | 임봉순  | 10,000  |     |        |
| 서민욱  | 10,000 | 임용택  | 10,000  |     |        |
| 서소빈  | 10,000 | 전매희  | 30,000  |     |        |
| 송서은  | 10,000 | 전태성  | 10,000  |     |        |
| 신선균  | 50,000 | 정동순  | 10,000  |     |        |
| 신순영  | 10,000 | 정보석  | 10,000  |     |        |
| 신영기  | 10,000 | 정선숙  | 10,000  |     |        |
| 신재원  | 10,000 | 정윤희  | 10,000  |     |        |
| 신재철  | 45,670 | 정재욱  | 10,000  |     |        |
| 신제숙  | 20,000 | 정태준  | 10,000  |     |        |
| 신지혜  | 10,000 | 정화영  | 10,000  |     |        |
| 신현창  | 10,000 | 조미향  | 50,000  |     |        |
| 안정혜  | 10,000 | 조성호  | 100,000 |     |        |
| 안차매  | 20,000 | 조해숙  | 10,000  |     |        |
| 양정미  | 20,000 | 조현승  | 30,000  |     |        |
| 오봉석  | 10,000 | 최대근  | 20,000  |     |        |
| 오종석  | 50,000 | 최부현  | 10,000  |     |        |
| 우윤옥  | 10,000 | 최순분  | 10,000  |     |        |
| 우현주  | 10,000 | 최순영  | 10,000  |     |        |
| 원제현  | 10,000 | 최형용  | 10,000  |     |        |
| 유성미  | 10,000 | 한희구  | 10,000  |     |        |

# 나눔저금통 현황

2011년 04월 01일 ~ 2011년 05월 31일

➔ **경주** 돼지저금통 45,530

➔ **광주**  
강한재(실상화) 30,440 광주첨단비아신협 12,130 무명 18,210 무명 11,670 민경진 21,100 이연경,이민호 30,480 정상권 15,900 채연희 16,650 풍양동최용우 11,590

➔ **대구**  
공윤경 29,460 구미상모동박미자(저금통3개) 68,100 권영두 46,000 김동하 19,890 김동현(?) 28,020 김보리 25,390 김옥순 26,340 김정기 8,600 김현숙 26,030 김현식 8,040 류수민 69,430 리디아 9,070 무명 117,190 무명 22,250 무명 5,790 무명 28,450 무명 12,630 무명 21,840 무명 98,990 무명 31,620 박길태 20,740 박복주 15,540 박준수 32,830 박준영,박민아 31,900 박진우 33,260 박창민,박가은 22,330 신미경 20,290 양치원 17,710 오수연 14,370 유동현 16,040 윤경화 250,000 윤여영(2개) 57,510 이마타마릴리치 35,042 이민영 20,310 이선희 24,240 이설비 40,880 이송이 29,570 이승연 94,650 이정호 17,890 이향숙 14,890 임금실 36,310 임금실 38,080 임금실 36,900 장금옥 56,840 장선숙 39,150 장영우,장준우 14,970 전병화 16,080 조영은 40,870 조옥분 26,440 조은영 38,500 차경순 31,250 최정은 21,100 한영희 24,050

➔ **대전**  
강환보 23,860 김선근 27,790 김선아 16,920 김아조 166,070 김행수 26,220 무명 87,600 무명 26,100 무명 7,190 박진영 34,260 배규삼 40,100 보부상마트 15,240 보부상마트 15,820 신순규 24,100 오경희 31,000 우상이 31,250 원지원 24,900 유순호 26,490 이기경 16,910 이상남 20,150 이정숙 19,400 장우영 19,450 장윤성 25,420 장희문 33,800 정익서 4,800 조태영 20,990 최은주 33,440 태안성 26,160 태한성 15,320 홍현철 94,470

➔ **동래**  
곽보선 6,490 무명 23,140 문성홍 16,790 영양삼계탕 55,080 이지후 81,790 정윤연 53,460 현대모비스 20,750

➔ **마산**  
권오현 35,220 김기민 22,710 무명 19,960 무명 5,450 무명 7,710 박나우 20,000 백연옥 33,140 신영숙 30,120 신혜영 11,680 아리랑 3,520 양성봉 20,360 우리마트 34,710 우리마트 19,010 원마트 47,850 윤종원 11,770 이정민 20,730 이형식 52,010 차혜연(연인우) 18,520 코요태 200,000

➔ **서울**  
강경희 29,260 강병창 48,910 강연순 129,880 강연순 50,840 강지연 28,060 갤러리아상버라 39,200 갤러리아상버라 55,050 고은재 15,900 고은재 14,210 구윤용 37,400 군중교구31개 501,310 (김계수 15,220 김명숙 14,270 김병문 15,950 김병중 20,120 김부자 20,220 김준자 15,580 류재철 2,400 무명 3,900 무명 15,300 박대성 1,860 박재영 5,040 방글 9,100 서길순 30,780 소진희 20,300 소혜진 20,150 송병철 12,790 송미경 22,360 염기홍 25,000 윤귀모 16,630 윤호정 16,110 이근배 17,510 이대영 27,850 이선민 20,140 이순민 22,490 이승주 7,570 이지경 4,630 이춘부 18,400 임흥곤 23,620 전종형 9,750 지윤진 22,080 최판임 24,190 금강정사 7,280 길벗저금통 309,000 김경례 15,550 김기연 3,650 김다솜 29,500 김도찬 41,780 김도현(김성철) 12,340 김명호 22,850 김복선 21,540 김성현 24,780 김영성 27,040 김영성 38,740 김영숙 35,550 김인순 2,000 김인희(576차 8,710 김재봉 36,080 김장영 23,880 김지아 9,890 김지철 33,200 김태오 59,270 김한진 33,680 김희경 69,030 동촌한의원 461,030 무명 36,750 무명 24,800 무명 28,860 무명 30,810 무명 16,790 무명 3,070 무명 27,500 무명 11,430 무명 40,520 무명 49,060 무명 163,460 문경19개 434,340 (면민식 13,000 권석연 26,030 김광애 42,200 김영화 26,170 김선하 53,340 김순옥 17,820 김유리 22,400 김학준 22,970 무명 22,210 무명 6,000 무명 15,100 무명 31,000 무명 28,760 무명 7,400 박미경 20,200 서연 13,900 송순옥 12,060 여성희 41,000 윤용택 12,780 문선경 14,030 문정혜 60,080 박정아 23,080 박지영 39,770 백창렬 14,040 범윤스님방송녹화제작진 137,220 변석준 21,480 서민규 7,850 서초1동우체국 42,000 석성초3-1 13,430 석성초3-2 4,530 석성초3-5 9,230 성남푸른유치원 22,280 성남푸른유치원 19,610 성남푸른유치원 12,570 성남푸른유치원(한솔) 10,420 성남푸른유치원(한가람) 27,380 송성희 19,390 송현미 43,680 심재희 72,450 아름다운가게홍대점 73,280 양계화 42,750 양승희(119,070) 임석용 15,870 여선주 41,500 연수고1-7번 85,550 왕선희 22,420 왕선희 51,660 왕실리탐앤타스 59,260 유영실 29,690

문의전화 02-587-8995

윤보향 22,620 윤영림 71,410 윤윤희 26,000 윤은주 29,900 이나경,이나윤 24,680 이나영 15,360 이명순 19,800 이상학 10,780 이애련 11,440 이영미 37,330 이원호727차 21,200 이원호727차 21,640 이유미 22,100 이윤형 69,930 이한준 36,110 이한준 39,040 이후영 17,340 이훈 65,880 임미희 28,140 임정복 17,980 임정복 25,970 장귀향722차 41,740 정준태 28,220 정남혜 19,440 정종욱 53,400 조경남 16,490 조경아 24,390 조경희 33,720 조정화715차 40,000 최상태 20,890 최윤익 47,400 최지영 26,200 최현범 27,820 탐앤타스고속터미널점 6,230 탐앤타스청담점 197,230 탐앤타스청담TT점 70,560 탐앤타스홍대파크점 64,310 평택중앙동우체국 57,910 황주희,황용희 38,130 허영주 40,000 허정실 20,880 홍희철 11,210 황유경 8,370 웨디리마트에글라드점 1,380 GS25 서초유원 24,380

➔ **울산**  
김영주 39,470 김용대 5,600 김창주 18,700 김태현 17,640 김한재(호두스토리) 60,050 대가야삼계탕 10,830 투레주르빵집 25,200 무명 40,020 무명 1,140 무명 3,870 무뎠나촌닭 10,320 물푸레 119,470 박동욱 33,290 박성민 5,310 안성숙 29,780 양승돈 36,620 우리들나눔점 30,000 울산축협(삼호) 28,610 이상철 8,210 이상훈 14,840 이장남 25,770 진춘우 30,300 정영기(한양스토어) 52,210 정우혁 42,260 정정영 42,980 조동원 40,550 지한별 27,620 최미희 35,970 축협남구지점 29,530 태화병원 9,270 토마토약국 21,280 허미선 50,960 현대중공업(연희실) 58,200 현대중공업총무부 16,310 현대중공업총무부 20,230 현대하이코스미용실 34,700 황상규 21,050 황유 74,950 황재국방 18,760 흥덕한의원 26,240

➔ **제천**  
김상희 36,630 김인덕 21,350 명동하나로쇼핑 13,030 무명 37,430 박민주 28,790 송현정28,230 이규열 20,150 이병욱 53,960 이희숙 12,220

➔ **창원**  
무명 13,790 무명 14,170 박석찬 6,480 박약숙 25,570 이미선 35,110 이영숙 22,530 이정숙 47,310 진찬운(동음) 26,630 최수빈 5,440 최영희(동음) 4,730

➔ **창주**  
강정자 33,270 기홍진 34,880 김명중 34,140 김모광 31,090 김여진 96,310 김예성 27,480 김은성 27,650 김지혜 20,220 나복민 6,440 나영자 70,130 대신의원 26,850 모글합 27,900 무명 31,800 민경천 22,860 박노옥 25,570 박준자 24,630 배종원 15,000 신미순 22,750 아해과학교실 29,870 윤귀에 45,700 이경숙 21,380 이재원 21,820 이항희 29,180 정옥진 6,280 정유안 22,600 조선경 27,240 조성현 24,670 조유진 6,430 최홍성 36,950 한동성 135,940 황보은 13,310

➔ **해운대**  
강윤영 16,680 김선미 37,060 김연자 8,330 도범문주3개 460,240 무명 36,070 무명 10,900 무명 12,850 무명 34,610 무명 35,660 무명 21,640 박수진 20,820 송진영,현도32,580 이실 68,290 이건우 30,390 정강철 57,440 정남주 15,320 정재영 7,820 추병우26,270 해운대법원 24,940 해운대법원2개 40,770

! **거리 모금 현황** |  
2011년 04월 01일 ~ 2011년 05월 31일

강서법회 375,370 경주 1,830,210 관악구 221,510 광명철산 152,860 광양여수 363,260 광주 662,800 구미 1,139,650 길벗 5,957,956 김천 215,860 남양주 67,000 노원 270,520 당진불보대 136,500 대구 5,196,900 대전 4,551,610 동래 4,755,980 동해 108,270 마산 4,577,550 마산월성초등학교 130,000 마산교오동 280,000 목포 302,700 문경 167,500 부천 246,290 분당 261,200 신분 239,290 상주 343,200 서울 9,815,600 서울애화학교 544,210 서울적농부 652,720 송파방이 382,000 수원법회 1,920,620 순천 651,820 신도봉중 242,280 신성애멀리법회 130,440 안동 339,520 안양 376,410 어린이들기 416,940 연수고 181,030 열린법회(윤명숙) 150,500 영주 236,310 용인수지 355,470 울산 2,290,110 은평 733,730 의정부 72,900 인천 648,820 일산 1,626,360 전주 185,600 정읍 319,210 제주 768,350 제천 895,010 창원 1,944,130 청녕정교회 800,650 청주 1,433,020 탐앤타스강남2호 59,000 평택 835,430 포항 1,171,510 함양 263,710 해운대 4,966,150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조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_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